

제 13차 DAC 평가 네트워크 정기회의

I. 회의개요

제 13차 DAC 평가 네트워크 회의가 2011년 11월 3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됨.

II. 주요내용

- (부산총회) Brian Atwood OECD DAC 의장은 다음주에 시작되는 부산총회 후속 논의 회의(Post Busan Interim Group Meeting)에서 부산총회의 공약의 이행점검을 위한 세계 지표(global indicators) 및 국가 차원의 지표(country level indicator) 선정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평가 분야에서는 각 국가가 스스로 선별한 지표에 대하여 국별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함.
 -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등은 지표 자체가 목적이 되는 MDGs 와 성격이 다르고, 파리/아크라 선언의 공약의 비해 명확성이 떨어지는(less clear) 부산 총회 공약 이행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계적 차원의 지표 설정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각국의 현실에 맞는 국가 지표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최신 동향 공유) 식량안보에 대한 체계적 평가(systematic review) 방법, 취약 국가에서의 평가 가이드라인 진전 사항 공유 및 민간분야(private sector) 평가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파트너 국가와의 공동 평가 및 평가 분야에서의 삼각협력 상황 공유, 독일의 효율성 평가(efficiency work) 프로그램, 영국의 재원의 가치있는 사용(VFM: Value For Money) 및 효과성 (Effectiveness) 평가 활동 소개, 다자기구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의 평가 활동에 대한 Evalunet과의 협력 소개 등을 통해 선진적인 평가 기법을 공유하고, 관심있는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여, 평가 분야에 있어 상호 발전을 꾀함.
 - 우리 대표단은 삼각협력 평가사례로 KOICA가 콜롬비아와 삼각협력으로 추진 중인 중미·카리브국가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공동평가를 소개하고 수원국과의 평가 부분에 있어 협력시 평가의 질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 스위스는 콜롬비아를 중요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있는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음
- (평가 제제 선진화) 재정 제약 하에서 점증하는 책임성 요구에 부응하여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호주, 독일, 영국의 사례를 공유한 바, △ 영국(DFID) 또는 미국과 같이 각 사업 담당자들의 평가 지식 축적 및 평가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기능의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도모, △ 영국(ICAI), 독일과 같이 독립된 평가 기관 수립을 통한 중앙집권적(centralization) 평가기능을 강화, △ 호주와 같은 양자의 혼합(중기 예산 확립으로 인한 국회에 대한 보고 기능 강화 및 외부 전문가 그룹의 활용)의 세가지 형태로 나타남.

Ⅲ. 관찰 및 평가/건의

- (평가 분야에서의 부산총회 후속조치) 각국의 평가 전문가들은 부산총회를 통해 변화한 의제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부산총회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시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함.

-수원국들과의 공동평가의 적극적인 진행, China-DAC Study Group을 활용한 평가분야에서의 협력강화, 평가분야에 있어서의 삼각협력, 수원국과의 공동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각 DAC 회원국들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Evalunet을 통해 강화하고 있는바, 한국도 Evalunet 활동 강화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가 역량 강화) Evalunet에서 공유된 체계적 평가,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등 선진적 평가 기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공동평가(joint evaluation)에 참여함으로써, 원조시행 기관의 평가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술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성과 측정시 상황적(contextual) 또는 정책적(policy) 복잡성을 간과하고, 계량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질적 연구와 계량적 연구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평가 역량 강화) 아울러 민간분야 평가, 남남협력, 삼각협력에 관한 평가 등 새로운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는 선진적인 평가 기관 내에서도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나라에서 평가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 분야의 평가 사업에 다른 나라 원조 기관과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 타 원조기관과 공동평가지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이는 평가 결과의 공유(communiation) 및 평가 분야에서의 수원국과의 협력 확대 관점에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기본 문건에 대한 번역 및 대외 공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시스템 선진화)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정부부처가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발협력정책·집행평가(Peer Review)의 권고에 따라 독립된 평가 기관을 설립한 독일의 사례나 평가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 미국의 사례는 향후 한국의 시스템 선진화 노력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ODA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중심 ODA」와 같은 맥락에서 제9차 개발협력평가소위에서 제안된 「현장중심 ODA 평가체제」의 경우는 USAID의 분권화를 통한 평가 선진화 방안과 일부 공통점이 있는 바, 향후 USAID의 개혁의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품질 제고) 개발 평가를 위한 품질 기준(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2011)과 함께 다른 선진 기관들의 평가의 질 담보를 위한 노력들을 참고하여 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의 2012년 소위평가 주제인 메타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영국의 독립 평가 기관(ICAI)이 각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기 위해 도입한 신호등 평가제도(Traffic mechanism 혹은 Green-Amber-Red Rating)도 참조할만 하나, 이는 평가기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능력이 전제되어야 실시를 고려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